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격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때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튼튼생활채널	40 번러동물극장 단짝(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수목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재)	0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재)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비틀발 고운말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앵그리 맘>(재)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건강칼리너
1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키즈 사이언스(재)	55 날씨와 생활
2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세상은 지금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역사저널 그날(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투코르서트 화통
3 00 직언직설	05 한국인의 상상(재)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과학마술단 40 경제 매거진 M 스페셜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 사이드
4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4 10 생명최전선(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풍다공	25 일일특기회 <압구정 밤>(재)	00 이야기 보따리 30 구리가 탐구생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애니월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미각 토크쇼 <전라도 제2부>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때때때 20 일일드라마<달려라 청미>
8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번러 동물 극장 단짝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기회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열대야 특집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속 사람들 55 스포츠	00 수목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00 수목미니시리즈 <앵그리 맘>	00 드라마 스페셜 <하이드 지킬, 나>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비평 윤건의 더 콘서트	10 투명인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 밤의 TV연예
12 50 먹거리 X 파일(재)	50 한국풍수교 25년 기획 동영상<술속의 하모니> ①:50 열마가 봤다(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유비뱅크	35 MBC 뉴스 24 ①:05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①:05 씨네포트(재)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토크쇼 부모-그녀의 품격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05:40 성공시대 가능한한국인(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두키 탐험대	19:50 사선에서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뽀빠에 친구	20:40 다크 오늘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크 오늘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대탐험
07:15 책과 광(재)	11:20 세계대탐험	16:00 당동명 유치원(재)	<인도양의 찬란한 빛, 스리랑카>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원더볼즈	21:30 한국기행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걸작 다크멘터리	16:30 우당탕탕 아이쿠	<부산교향곡>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생활	16:45 책과 광	21:50 EBS 다크 프라임
08:20 로보카 폴리(재)	13:10 엄마 없이 살아보기(재)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아파트 중독>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40 사이틴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2:45 극한직업
08:50 코코몽 3	13:50 말할라 뽀빠에	17:30 두디공	23: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05 원더볼즈(재)	14:00 마이 모험	17:45 로보카 폴리	<히말라야 새해 맞이>
09: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24:10 한국영화특선 <박하사탕>
09:35 이담 스페이스 정글	14:30 머털도사	19:00 곤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읽어보기>	12:10 올림포스 <국어II-읽어보기>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 <화물과 통계>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B>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물과 통계>
03:20 " <수학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6:30 " <수학II>
" <기하와 벡터>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05:00 뉴탐스런 <화학I>	" <기하와 벡터>
06:00 " <지구과학I>	18:10 뉴탐스런 <화학I>
06:40 " <세계지리>	19:20 " <지구과학I>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수능특강 <영어A>
09:10 " <이은주의 수학II>	21:50 " <수학Ia>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A>	22:30 박용의 이슬로 만나는 경제
11:00 " <수학I>	23:00 2016 수능특강 <국어A>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20 "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
08:00 행정사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8:30 9-7급 공무원 시험 문제풀이	<전과목 5-1>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국어⑤⑥>
09:50 " <수학I(하)>	18:40 " <수학3>
10:30 " <도덕I>	19:20 필독중학국어 <시>
11:10 " <국어③④>	20:00 EBS 인문학특강
11:50 " <수학2(하)>	20:50 EBS 기획시리즈
12:30 EBS 특강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13:10 중학 학습비법특강 <영어I>	22:00 중학 학습비법특강 <수학3>
13:50 " <영어2>	22:40 TV 중학 <국어⑤⑥>
14:30 " <역사I>	23:20 필독 <사회2>
15:20 만점왕 <사회 3-1>	24:00 왕기초 중학 <수학3>
15:50 " <사회 4-1>	24:30 백점공략 <교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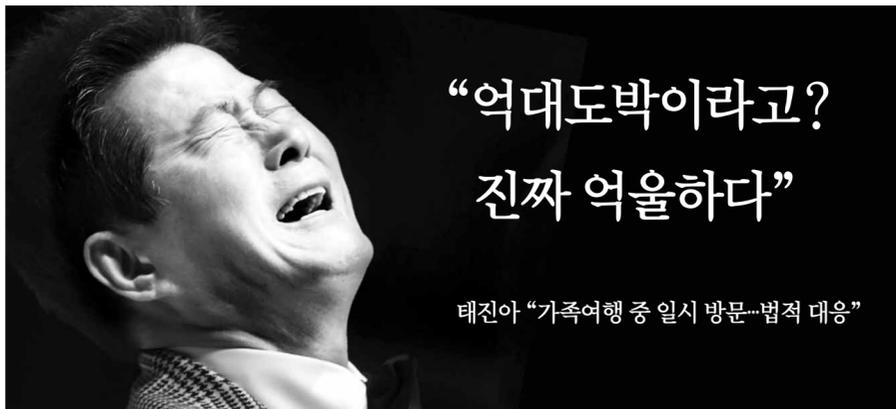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5일(음 2월 6일 庚子)

子	48년생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 법이다. 60년생 중심을 잡아야 문제가 수습될 것이다. 72년생 새옹지마의 이치이니 차라리 더 나아 수도 있다. 84년생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방심해서도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77, 88
丑	49년생 매끄럽지 못 하다면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61년생 순풍의 해류에 항해하고는 있으나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보자. 73년생 반드시 설득해야만 하느니라. 85년생 우선순위의 역할에 상 위함이 없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9, 30
寅	38년생 대체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면서 실속이 있다. 50년생 가급적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절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가 상당하다. 74년생 재물과 인연이 깊다. 86년생 소 기의 성과가 나타나겠다. 행운의 숫자 : 84, 04
卯	39년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51년생 대박이 날 수도 있다. 63년생 복잡다단함을 잘 정리할 수만 있다면 행세를 좌우할 만한 대국을 이룰 것이다. 75년생 변수는 없다. 87년생 목전에서 물거 품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0, 47
辰	40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다. 52년생 주변의 변화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자. 64년생 표면의 현상을 역면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76년생 중간 점검이 절 살히 요청되는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61, 12
巳	41년생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잔잔히 깔려 있었다. 53년생 처음부터 짧은 인연임을 알고 대해야겠다. 65년생 객관적인 판단과 냉철한 시각이 절실한 때이다. 77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어 집종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68, 57

午	42년생 뜻이 확실하다면 기탄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 54년생 어려운 상황이 잘 실패하겠다. 66년생 노력이나 중박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한다. 78년생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7, 96
未	43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55년생 단계 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느니라. 67년생 기본에 충실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79년생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자. 행운의 숫자 : 50, 35
申	44년생 작곡의 망상을 부르는 법이다. 56년생 일관되게 추구한 다면 궁극적으로 성취 하리라. 68년생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 선무다. 80년생 밖에서는 전혀 쓸모없던 것이 안에서는 참으로 요긴하리라. 행운의 숫자 : 15, 51
酉	45년생 사소하다고 여겨 왔던 일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57년생 뒤돌아보는 것이 순리이니라. 69년생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81년생 말소심을 하지 않는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9, 26
戌	46년생 화합은 부를 일으키며 불화는 부를 파멸시킬 것이다. 58년생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절실해 필요하다. 70년생 생산 적인 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한 번 실수한다면 오점으로 남으리라. 행운의 숫자 : 81, 92
亥	47년생 아주 자연스러운 테크닉이 필요하다. 59년생 거친 풍량이 밀려오고 있으니 안전하게 대비하자. 71년생 파도가 높으니 배를 띄우면 아니 되겠다. 83년생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흥영의 기운을 함께 나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0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억대도박이라고? 진짜 억울하다”

태진아 “가족여행 중 일시 방문...법적 대응”

가수 태진아가 해외에서 역대 원정 도박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태진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일대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해 “가족들과 미국 여행 중 일시 방문했을 뿐”이라며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 진짜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태진아는 기자회견 도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차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태진아는 자신의 해명에도 첫 보도를 한 매체가 후속 기사를 내겠다며 여론몰이를 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일주일간의 여행은 제 가족에게 꿈이었다. 제 예전에 미국 살 때 남들이 가족과 여행하는 모습 보면서 부러웠다. 그래서 생일을 맞아 가족과 여행을 떠났다”면서 “억대 원정도박이 아니다. 진짜 억울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진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의 권정범 변호사는 “기자회견 이후 (보도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오늘 공개한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태진아가 본인의 진감을 맞아 지난 15~22일 미국여행을 떠났으며 이 기간 인근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태진아가 이 여행에서 총 네 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총 7000달러를 뺏겼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카지노에서는 1시간가량 1000달러의 판돈으로 게임을 해 4800달러를, 이를 뒤 방문한 로스앤젤레스 내 다른 카지노에서 1시간가량 3000달러로 게임을 해 1500달러를 뺏겼다고 설명했다. 또 태진아가 라스베이거스에선 두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총 1500달러 정도를 바퀴 500달러를 딴 사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억대 원정 도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이와 함께 게임을 한 장소가 첫 보도 내용처럼

고액 베팅이 이뤄지는 특별실이 아닌 자격 제한 없이 일반인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며 베팅 최저 금액도 10~25달러 선이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베팅액은 100달러 이상이었다는 점도 있지만 문제의 카지노에서 나올 때 총 환전액이 6000달러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도내용처럼 한 번에 3000달러씩 베팅할 돈 자체도 없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와 함께 두 장소 모두 아들 이우가 게임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태진아측은 자신의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사에 언급된 카지노의 폴 송 총지배인과 공개 통화를 진행했다. 해당 카지노에서 2년간 근무했다는 송 총지배인은 “태진아가 VIP룸이 아닌 최소 베팅 금액이 10달러선인 테이블에서 했다. 환전액도 판돈 1000달러를 포함해 총 6000달러로 기억한다. 체류 시간도 한 시간 남짓”이라고 말했다. 태진아측은 이와 함께 첫 보도 매체 대표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태진아 지인에게 25만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도 공개했다. 이 매체 대표는 대화 상대인 태진아측 지인에게 자신의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고 투자를 해달라며 투자액으로 최대 20만달러를 언급했다. 또 대화 상대에게 이를 성사시키면 중간에 5만달러를 주겠다고 총 25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조인했다. 태진아는 이러한 증거를 공개하던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보였다. 특히 기사를 쓴 매체 대표가 돈을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을 들던 중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흐느꼈다. 태진아는 “그 매체의 주장에서 사실은 단 하나다. 제가 카지노에 갔다는 거다. 나머지는 모두 다 소실”이라며 “이유가 어찌됐든 제게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카지노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관객이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

CGV 조사 28.4%로 1위
황정민, 하정우 등 뒤이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영화 배우 중 관객이 가장 믿고 보는 배우는 송강호(사진)인 것으로 조사됐다. CJ CGV는 지난 1월 23일~2월 5일 작별 상·하반기 각각 2번 이상 CGV를 이용한 고객 925명(복수 응답)을 대상으로 ‘영화배우·감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강호(28.4%)가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최민영 ‘변호인’을 비롯해 ‘관상’·‘살국영차’ 등을 연이어 히트시킨 송강호는 연기 잘하는 배우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영화 관람 의향에도 반영돼 상반기 개봉을 앞둔 송강호 주연의 영화 ‘사도’(감독 이준익)의 경우 응답 인원의 56.6%가 관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송강호의 뒤를 이어 황정민, 하정우, 최민식, 강동원, 류승룡, 김윤석, 차태현, 설경구 등이 믿고 보는 배우로 꼽혔다. 이들 배우들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 ‘히말라야’(황정민), ‘암살’(하정우), ‘대호’(최민식), ‘도리화가’(류승룡) 등도 대체로 높은 인지도와 관람 의향을 보였다고 CGV 측은 전했다. CGV 리서치센터 이승원 팀장은 “대체로 배우에 대한 믿음

이 곧 출연 영화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흥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22%포인트다.

그리스로 떠나는 ‘꽃할배들’

나 PD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했던 곳”
한류스타 최지우 합류... “말 같은 느낌”

케이블랙tvN의 예능 프로그램 ‘꽃할배 할배’는 팔순 전후 어르신들이 배낭을 메고 세계 각지를 누빈다는 사실만으로 화제가 됐다. ‘꽃할배’가 프랑스, 스위스, 대만, 스페인을 거쳐 새로운 행선지로 택한 곳은 신화의 나라인 그리스다. 원로배우 이순재(80), 신구(79), 박근형(75), 백일섭(71) 등 ‘꽃할배’ 넷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열흘간 그리스를 여행하다 돌아왔다. 사막 위에 지어진 도시 두바이도 중간에 거쳤다. 첫 방송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는 ‘꽃할배’들과 연출자인 나영석 PD가 참석한 가운데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나 PD는 그리스를 접착은 데 대해 “여행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의지”라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한 곳이 두바이와 그리스였고 거리의 계절상 그리스를 택했다”고 밝혔다.



우리 나이에 평균 77세인 어르신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을 본뜬 애칭까지 얻었다. 리더인 이순재는 ‘순재우스’, 바다보다 더 넓고 큰 호기심을 가진 신구는 ‘구세이돈’, 뜨거운 열정을 가진 박근형은 ‘근폴론’, 힘이 장사인 백일섭은 ‘헬라클레슈’로 불린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이순재는 “그리스는 고대 철학의 땅을 연 분들을 배출한 나라”라면서 “철학뿐 아니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몇 천 년 전 유적을 보면서 감동했다”고 밝혔다. 그리스편이 흥미를 끄는 것은 원조 짐꾼 역할의 배우 이시진(43)뿐 아니라 한류스타 최지우(40)가 보조 짐꾼으로 동행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나 PD 또한 “그동안 ‘꽃할배’가 무뎠던 아들과 함께 떠난 말 없는 여행이라면 그리스편은 명랑한 말이 합류했을 때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여행”이라고 소개했다. “‘꽃할배’는 제작진 심정이 납니다. 선생님들과 연례행 사처럼 여행을 떠나죠. 시청자들도 ‘꽃할배’ 그리스 편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속극을 보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나 PD)